

# “나 홀로 교회를 사랑한다는 이가 있다면?”

## ■ 이종윤 원로목사

이 세상에서 무엇이든 자기 홀로 독점하겠다는 것은 좋지 않다. 심지어 아내를 독점하겠다는 이마저도 현대적이지 못한 이기주의자라는 비웃음을 당하는 터에 기업을 독점하려는 재벌이나 권력을 한 손에 움켜쥐고 흔들겠다는 독재자는 더욱 비난의 대상이 된다.

이런 독점의식이 교회를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일에도 큰 독소가 되고 있다. 어느 목사님이나 성도가 이 교회는 내가 피땀 흘려 세웠고 가꿔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교회사랑 운운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침범을 받는 것으로 간주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려는 이들을 경쟁 대상 또는 적군으로 생각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에서 몰아내려는 정신 빠진 이상한 사람들이 있고 텃세 정도가 아니고 교회 독점목이 발동되면 하나님의 교회를 사탄의 아성으로 만들어 놓게 된다.

나라를 사랑한다는 자칭 애국자들 즉 여당, 야당, 군인들, 공무원, 기업인, 운동권 학생 등 모두가 자기들만 진정한 애국자라고 큰소리를 치고 있으니 나라가 누구를 참애인으로 맞아야 할지 난감한 형편이다. 그러나 다른 독점과 같이 애국의 독점이나 교회 사랑의 독점목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자기만 나라와 교회를 진정 사랑하는 애국자요 신자라면 다른 애국자나 신자 모두 가짜라는 말이고 자기 방식대로 나라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애국이고 하나님 사랑이라 하니 이 또한 가관이 아닐 수 없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명을 남기셨다고 자기 혼자라고 불평하는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이들 자칭 애국자나 언필칭 하나님 또는 교회 사랑을 자기만 하는 것처럼 말하는 이들은 나라에도 하나님께도 큰 피해를 입고 있으면서도 자신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한다는 거짓 신 속에 살고 있는 가증한 자라 할 것이다. 애국 독점자나 교회사랑은 나만이 할 수 있다는 이들의 정신 구조를 분석해 볼 필요도 없이 이들의 나라사랑이나 교회사랑은 결국 자기 이익이나 자기 이상을 사랑하며 나라나 하나님을 빙자하여 사람들에게 자기를 들어내려 하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우리나라 고위 공직자로 일하신 분들이 선임자나 후임자에게 인계인수를 공식적으로 가져본 적이 없다는 말을 듣고 그들은 나라 사랑하여 장관으로 일을 했는지 묻고 싶었다. 국가 이익보다 자기 치부나 치적을 세우려 했다면 그는 참애국자가 아니듯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한다는 이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되게 하는 일에 쓰임 받았다면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한 자일 것이고 자기 소욕이나 채우려고 충성 봉사했다면 아무리 큰일을 했다 해도 하나님을 사랑했노라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애국을 독점하려는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속아 넘어갈 줄 알고 있지만 권력을 독점하거나 시장을 독점하려는 사람들처럼 사람들 눈에 쉽게 발견된다. 하물며 불꽃같은 눈으로 우리의 마음까지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지를 모르실리 없겠거늘 누가 감히 하나님의 면전에서 속임수로 눈가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두려운 일이다.

서양 사람들은 매일 “당신을 사랑해요”라는 고백을 받아야 부부간에 안심한다 하지만 한국의 애처가는 조용히 남편의 본분을 성실히 함으로 아내 사랑을 나타낸다. 그런데 애국이나 하나님 사랑엔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 나라와 하나님을 그리고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서양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처럼 애국한다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떠들지 않는다. 이제 우리도 아내에게 대하듯 좀 떠벌리지 말고 조용히 깊이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할 때가 되었다. 나라 사랑은 더 많은 이들이 나라를 사랑하게 해야 하듯 교회 사랑도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애국독점, 교회사랑은 나 홀로만이라는 환상을 먼저 버리는 것이 참사랑의 시작이다.

#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어느덧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9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번 주에도 다락방장/교구 간사를 통하여 사전 신청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교회에서의 대면예배가 진행되고, 본당예배 인원이 초과될 경우 웨민홀에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사정상교회 대면예배에 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전처럼 실시간 온라인중계 예배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찬양예배, 새벽예배, 수요일예배도 대면예배로 드리며, 교회학교는 이전처럼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드리므로 오랜 기간 지속되는 코로나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하는 서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일 1,2,3부 및 찬양예배 시간에 제공되는 실시간 온라인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실시간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이전과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ziHchZPo8YwmR9UYpoXJrA>

주일예배 순서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 \* 예배 순서 및 영상예배 지침 [http://www.seoulchurch.or.kr/upload/20210926\\_sermon.jpg](http://www.seoulchurch.or.kr/upload/20210926_sermon.jpg)

## 서울교회 당회 드림

<b>우리의 비전 (vision)</b>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QR코드 
------------------------	---	---

<b>부 목 사</b>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b>전도사</b> 박미라 안용곤 <b>준전임전도사</b> 강남희 <b>교육전도사</b> 허은 이대원 정기성 김예지 <b>선 교 사</b> 권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혜경,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병연·김희경, 우상식·김정욱(인도),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오정녀(케냐), 김종일·백순미(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사, 비스타파, 사지, 예복(인도), 스브로토바로이, 필리몬, 프로산토, 수레시, 수바쓰, 알로롱, 비시누보도, 보디소프, 린롱, 수란존(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왕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 정상진·홍성임(말라위), 이재울·박병진(캄보디아),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b>전임목사</b> 조동수 <b>협동목사</b>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 신도사 권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혜경,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병연·김희경, 우상식·김정욱(인도),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오정녀(케냐), 김종일·백순미(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사, 비스타파, 사지, 예복(인도), 스브로토바로이, 필리몬, 프로산토, 수레시, 수바쓰, 알로롱, 비시누보도, 보디소프, 린롱, 수란존(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왕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 정상진·홍성임(말라위), 이재울·박병진(캄보디아),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	---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b>대한예수교 장로회</b>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이 종 윤 Lee Jong-Yun, Ph. D., D.D., D. D.	담임목사 Senior Pastor 손 달 익 Rev. Son , Dal-ig Tel.558-1106 /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

## “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

■ 마 5:13-16  
 금주에 진행될 제106회 총회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라는 주제로 모이게 됩니다. 오랜 시간 우리 장로교회는 국가와 민족을 십자가로 여기면서 시대마다 주어진 국가적·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왔습니다. 이러한 교단의 역사와 전통은 우리 교회의 ‘천국시민 양성, 만민에게 전도, 빈약한 자 구제’라는 목표와 ‘이웃의 등대, 민족의 구원선, 세상의 나침반’이라는 사명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말씀을 통해 신앙의 기본을 재확인하고 교회의 사명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가  
 본문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택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늘 명심해야 할 사실은,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주님이 택하여 부르신 제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이요, 고백인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여호와와 성민’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신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벧전 2:9)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고백에서 시작합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2. 왜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인가  
 ‘세상’이라는 용어는 성경에서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창 6:5),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요 15:18),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라’(엡 2:2). 이런 측면에서 사용되는 세상은 타락한 인간 세계를 의미합니다. 동시에 ‘세상’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세계(창 1)이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라 독생자를 주셨으며’(요 3:16),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 때에 세상이 새 하늘 새 땅으로 변화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세상이 구원받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기를 바라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씀은, 어둠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악의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공적인 사회적 책무에 성실하게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3. 교회의 공적 사명  
 구약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변을 돌아보는 공적 의무를 명령하셨습니다. ‘공공하고 빈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네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신24:14). 신약성경에서도 바울은 당시의 귀족들에게 노예(종)들에 대한 인도적 대우를 강조했습니다. ‘상전들이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나’(골 4:1). 교회에서는 그들을 동일한 형제자매로 대우하고 차별하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웃과 공동체의 평화와 정의로움을 위해 희생하고 기여하는 것을 자부심과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본문 16절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리다툼과 시기심, 두려움 등으로 가득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담대한 복음의 증인들로 변화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의 임재 체험을 통해 담대한 사람들로 바뀌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조원영 목사	안인호 장로
II 오전 11시20분	전재홍 목사	서문석 장로
III 오후 2시	서명철 목사	서명철 목사

입례송 Prelude ..... 오르가니스트  
 예배예의 부름 Call to Worship ...시 118:14-16...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 인 도 자  
 \* 찬 송 Hymn .....6(8)... 다 합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 다 합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56(시 128)... 다 합 께  
 \* 송 영 Doxology ..... 1(1) ... 다 합 께  
 기 도 Prayer ..... 말 은 이  
 찬 송 Hymn .....84(96)... 다 합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마 5:13-16...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 다 합 께  
 봉 헌 Offering ..... 다 합 께  
 \* 봉헌송 Offering Hymn .....634(70)... 다 합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 인 도 자  
 찬 양 Anthem .....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 다 합 께  
 설 교 Sermon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손달익 목사  
 \* 찬 송 Hymn .....458(513)... 다 합 께  
 \* 축 도 Benediction .....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 다 합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 찬 양 예 배

오후 5시 ·인도: 장석남 목사, 설교: 손달익 목사

목 도 ..... 다 합 께  
 성 시 ..... 시 145:8-9 ..... 인 도 자  
 찬 송 ..... 341(367) ..... 다 합 께  
 기 도 ..... 노제현 집사  
 성 경 ..... 행 5:1-11 ..... 인 도 자  
 찬 양 ..... 찬 양 대  
 설 교 ... “재물이 주는 시험” ... 설 교 자  
 \* 찬 송 ..... 342(395) ..... 다 합 께  
 \* 축 도 ..... 설 교 자  
 \* 주기도송 ..... 다 합 께

##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인도, 설교: 서명철 목사

기 도 ... I부: 최세정 권사 II부: 박진희 권사  
 성 경 ..... 시 50:7-15 ..... 인 도 자  
 찬 양 ..... 찬 양 대  
 설 교 ..... “참된 예배” ..... 설 교 자

##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김양연·박수강·김복희2  
설 교 ..... 손달익, 장석남 목사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봉 헌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부	가브리엘	백경화	이수경	정혜은	윤주일	가브리엘		
II부	할렐루야	류총기	차주연	김양연	윤주일	그레이스헨드벨	송재월	
III부	임마누엘	유태왕	전지희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임범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마 5:16)	금주의 성구	
영어예배	예루살렘							
수요I부	호산나	구민영	안효주	홍혜란				
수요II부	시 온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11시20분	웨스트민스터 홀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당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 교 회 소 식

### ☛ 알 림

- 101호 예배**  
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청년부 예배 : 오후 2시
-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 501호 예배 및 부서 예배**  
중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 601호 부서 예배**  
초등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602호 부서 예배**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 세례 문답교육 : 주일 오후 1시-1시30분
- 603호 부서 예배**  
소망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 청년1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609호 부서 예배**  
세례 문답식 : 주일 오후 1시30분-3시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701호 예배**  
유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702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세례식 신청 마감 - 10월 세례(입교, 개종, 유아세례)식이 10월 17일(주일) 찬양예배 시 있습니다.**  
- 세례 청원서 작성 및 신청 마감 : 10월 3일(주일)  
- 세례 교육 : 10월 10일(주일) 오후 1시 609호  
- 세례 문답 : 10월 10일(주일) 오후 2시 609호  
\*신청접수처 : 교육부서 및 교회 사무국
-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106회 총회**  
일시 : 2021년 9월 28일(화)  
장소 : 한소망교회  
☛ 결 혼  
1. 이성재 군(1고교 이우진 집사 김일순 권사의 장남)과 박신정 양(박성건 성도, 홍길주 권사의 처녀) / 10월2일(토) 오후 6시 30분 더 라움 4층 체임버홀(02-538-3366) / 분당선, 9호선 선정릉역 4번 출구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 종교시설에 대한 변경된 방역수칙에 따른 예배 안내 (8.9.부터 지침 변경 시까지)

- 주일 1,2,3부, 찬양예배, - 대면, 실시간 생중계
  - 수요1부 예배 - 대면, 실시간 중계  
수요2부 예배 - 대면, 수요 1부 예배 녹화 방송
  - 새벽기도회 - 대면, 실시간 중계
- 따라서 수요 2부 예배를 제외한 모든 실시간 중계예배는 각 해당 시간에 드리시면 됩니다.

###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포함)

주일1,2,3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수요일예배	새벽기도
1,309명	402명	1,711명	481명	1,959명

## 🌳 핍박받는 자

세상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핍박이 있다. 자신의 실수와 과오로 인해 고난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무고한 사람에게 부당한 이유로 환란이 임하는 경우도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속히 회개하고 바른 길로 들어서는 기회로 삼아야 하겠지만 후자의 경우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래 참음으로 은혜가 되고 덕을 세우기도 할 것이다.

예수님은 그보다 더 심각한 경우를 들어 우리를 교훈하셨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고난은 피할 수도 있고 원치 않으면 받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자원하여 선택한 고난이요, 사랑하기 때문에 막을 수도 없는 고통인고로 매우 고상한 대가를 지불한 핍박이라 하겠다.

안일과 번영을 위하여 의를 헌신짝처럼 저버리는 현대인들에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들이 많기를 기도한다.

-이중윤 원로목사 신앙칼럼 '순례자'에서-

### 청 결 유 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합시다.

### 에너지 절 약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끄시다.  
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옵시다.

### 주 일 성 수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가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